



#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조재린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함. 국내 보험회사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안은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수용한다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10월 한국회계기준원(KAI)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함.

- IFRS4 2단계는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회계기준으로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도입 시 부채가치 증가, 재무변동성 확대 등 보험회사 자본관리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IFRS4 2단계 도입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최종 기준서는 2017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3년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도입시기는 2021년으로 예상
  - 따라서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이 수용된다면 IFRS4 2단계 도입시기는 현재 예상보다 2년 연기된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의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현재 국내 주식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회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함.<sup>1)</sup>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K-IFRS 적용 회사의 범위에 속함.<sup>2)</sup>
- K-IFRS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고 있음.<sup>3)</sup>

■ K-IFRS의 제정·개정(이하 '제정')절차는 크게 'IFRS 제정 참여' 단계와 'IFRS 채택절차' 단계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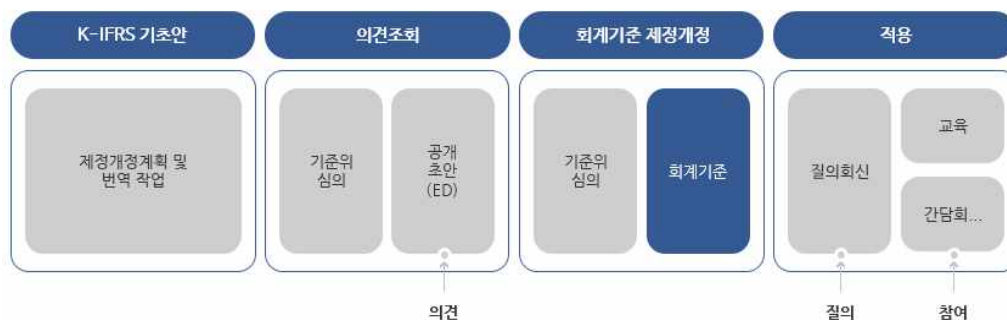
- 'IFRS 제정 참여' 단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 제정 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제시하는 단계임(<그림 1> 참조).
  - IFRS 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필요 시 국제 공조 추진
- 'IFRS 채택절차' 단계는 'IFRS 제정 참여' 단계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확정된 IFRS 제정안에 대해 번역 작업 및 심의 과정 등을 거쳐 K-IFRS를 채택하는 절차임(<그림 1> 참조).

<그림 1> K-IFRS 제정개정 과정 1: IFRS 제정 참여



주\*: PIR(Post Implementation Review): 사후이행검토.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그림 2> K-IFRS 제정개정 과정 2: IFRS 채택절차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1) 외부감사법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의 2조(회계처리기준의 적용).  
 3) 외부감사법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4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4 2단계 도입 연기에 대한 요청은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번 제안을 수용한다면 IFRS4 2단계 도입 연기는 ‘IFRS 채택절차’ 단계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 개정 및 IFRS 전면도입국 지위 변화 없이 도입 연기가 이루어짐.
  - 이번 제안의 수용여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결정함.
-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수용한다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안은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 확정 이후 도입시기 연기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의 도입시기 연기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kiri](#)